

결국엔 동원선거

민주 공천 모바일·현장 투표 사활 건 경쟁 조직·자금력 싸움 전략 '혼탁 선거' 부채질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위한 국민 경선에 선거인단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를 도입함에 따라 경선에 나선 각 예비후보 캠프는 일제히 선거인단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 선거인단 동원 능력이 경선의 승패를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조직을 대거 투입하는 '동원선거'와 돈으로 매수하는 '돈 선거'가 우려되고 있어 경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동원선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선과정에서 '돈 선거'가 터져나올 경우 정치채신·혁신을 내세우며 모바일 투표를 도입한 민주통합당 지도부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어 엄중한 경선 관리 대책이 절실하다.

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이 전날 국민경선(모바일+현장투표)을 통해 총선후보를 선출하기로 함에 따라 각 예비후보들이 선거인단 모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권자 15만명이 넘는 선거구의 일부 후보들은 선거인단 모집 목표를 각각 5만명 정도로 잡고 있고, 15만명 이하의 3만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선거인단을 얼마나 모집하느냐가 이번 경선의 주요 관건으로 떠오르면서 각 예비후보들은 이날부터 전 조직을 총동원해 선거인단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역 의원과 일부 예비후보들은 지난 1·15 정당대회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모집한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을 바탕으로 폭을 넓혀가고 있는 반면, 뒤늦게 선거운동에 뛰어 들어 조직력과 인지도가 약한 정치 신인들은 사실상 '올인' 하다가피 하고 있다.

대부분의 후보 선거캠프는 조직 담당자들이 일선 현장에

서 뛰고 있는 중간 조직관리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인단 모집 목표를 할당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상 조직력이 가장 막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절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관권선거' 논란도 예상된다.

벌써 화순군에서는 불법 선거인단 모집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화순지역위원회 대의원 84명 등은 8일 전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의원이 도의원과 군의원을 비롯한 지역위원회 읍·면 운영위원장, 협의회장, 청년위원장등을 지난 1월31일 소집해 경선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관권선거를 했다고 주장하며 전남선관위와 사법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선거인단 모집에 돈이 오간다는 소문과 명부 거래설까지 나돌아 '돈 선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공천 혁신을 위한 모바일 투표 도입과 국민경선이 스마트 시대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자발적 참여보다는 조직과 자금 동원에 따른 폐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선 과정이나 경선 이후 금권 선거 등 선거법 위반이 터져나올 경우 민주통합당의 첫 총선 공천과정이 최악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선거인단 모집에 돈이 오간다는 소문과 명부 거래설까지 나돌아 '돈 선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졸업식장 경찰 감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알몸 뒤집기' 등 졸업식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이 발벗고 나섰다. 7일 오전 졸업식을 마친 광주 총장중 학생들이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문을 나서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은 이날 학교 주변 곳곳에 경찰 30여명과 순찰차를 배치, 졸업식 후 밀가루 세라나 옷 벗기기 등 과도한 졸업 뒤집기를 단속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제2순환도로 통행료 또 오른다

市, 단계적 인상 추진...1구간 이달중 "재정보전금 이용자에 떠넘겨" 비난

광주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통행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등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제2순환도로 1구간과 3-1구간, 4구간에 대한 통행료를 올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구간의 경우 빠르면 이달 중 인상하고, 3-1구간과 4구간은 오는 4월 중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상 폭은 소형차의 경우 구간별로 200원, 중형은 300~800원, 대형은 400~10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승용차와 16인 이하 버스, 2.5미만 트럭 등 소형차 요금은 1구간(두암IC~지원IC·14.23km)은 1200원에서 1400원으로, 3-1구간(효덕IC~포암지구·3.53km)과 4구간(서창IC~산월IC·4.5km)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각각 조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인상이요인 발생하면 통행료를 인상해줘야 하는데 지금껏 통행료를 동결해왔다"며 "하지만, 물가상승 폭이 높아 올리는 인상을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인상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인상은 지난 2009년 4월 인상 이후 3년 만이다.

■ 통행료 인상요인 분석 (단위: 원)

구분	소형 (승용차·16인이하 버스·2.5톤미만 트럭)		중형 (17~32인승 버스·2.5~5.5톤 트럭)		대형 (33인승 이상 버스·5.5톤 초과 트럭)	
	현행	조정	현행	조정	현행	조정
1구간	1,200	1,400	1,900	2,700	2,400	3,400
3-1구간	1,000	1,200	1,900	2,300	2,300	2,900
4구간	1,000	1,200	2,000	2,300	2,500	2,900

(자료:광주시)

이번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것이라고 하지만,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올해 광주시가 98억 원이라는 재정보전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보전금을 제2순환도로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은 "재정보전금을 줄이기 위해 무조건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보다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순환도로의 재

정보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차라리 100% 여론조사로 뽑자”

전남지역 일부 후보들 “농어촌 지역 고령자 많아 모바일 투표 불가능”

민주통합당이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위한 국민경선에 모바일 투표와 현장 투표를 도입한 데 대해 전남지역 일부 후보들이 '돈 선거' '동원선거'를 우려하며 100% 여론조사 방식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전남지역의 경우 농촌 선거구가 많은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절반에 육박함에 따라 모바일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농어촌 선거구는 100% 여론조사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박광온 해남·진도·완도 예비후보는 7일 “농촌선거구는 고령인구가 많아서 모바일투표가 불가능하고 선거인단 모집도 자발적 참여자보다 조직과 자금의 동원에 따른 폐해가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100% 여론조사 도입을 주장했다.

이윤석(무안·신안) 의원은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자칫 조직선거, 돈선거의 폐단을 낳을 수 있다”며 “100% 여론조사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모바일 투표가 ‘돈을 실어 나를 수 없는 투표’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서울과 대도시에서 통하는 말”이라며 “사실에선 모바일 투표를 위한 동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영재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조직적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국민경선 방식이 개혁성·도덕성·공정성의 개혁공천을 이룰 수 있을까 우려된다”며 “통합의 정신을 살리고 총선승리를 위해 유능한 신진인사들에게 자기를 표현하고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시민배심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갑 광주 서구 예비후보는 “모바일투표는 민주당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인물,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 후보로 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특히 모바일투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김영근 영암·강진·장흥 예비후보는 “모바일 투표를 도입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모바일 투표는 금권과 관권선거를 막을 수 있고 농촌지역에서도 선거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조 3천억원 투입!

- 획기적 도심재개발
- 일자리 3만5천명 이상
- 관광객 연간 300만명

글로벌 문화 행정가

- 전남 보성 출생(56세) • 서석초 서중일고, 고대법대, 행정학박사 • 행정 고등고시 24회 합격
- 광양군수(37개)전 • 전남 문화환경국경/기획관리실장·전 • 세종시(행정도시) 건설청 본부장(전)
- 문광부 아시아문화도시 추진단장(차관보급)전

젊은 정치냐? 새로운 인물이나!

이병훈 후원회

민주통합당 동구 국회의원예비후보

후원회장 : 노진영

- 후원 안내
- 개인은 연간 총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후원 금액은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방법

후원계좌 : 외환은행 620-208954-555
예금주:김병수(이병훈후원회)
광주 동구 금남로1가 전일빌딩7층 T.062.233-0142 F.062.227-4011

- 기부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초과부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